

여수세계박람회

‘여수의 밤’ 낮보다 뜨겁고 아름다워라

해상무대 빅오·분수쇼
김장훈 등 인기가수에
지역 문화단체 공연도

여수의 밤은 낮보다 아름다웠다.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 여수세계박람회장 빅오 해상무대에 가수 김장훈이 오르자, 관객들은 모두 여명의 관광객들이 뜨거운 함성을 내질렀다. ‘라이브 황제’답게 김장훈은 다양한 퍼포먼스로 관광객들을 사로잡았고, 밤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황홀한 공연에 팬들은 냉을 잊었다.

밤으로 이어진 박람회의 열기는 해상무대 뒤편에서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다 바람으로도 식히지 못했다.

여수박람회의 감동은 밤에도 계속됐다. 이번 박람회의 최고 히트 상품인 빅오쇼와 인기 가수들의 공연, 물산과 이순신광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이 ‘여수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

이날 해상무대에서 펼쳐진 분수쇼와 빅오쇼에도 관광객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영화 ‘ET’의 주제곡에 박자를 맞추듯, 물줄기들이 춤을 쳤고 물과 불, 어둠과 환상적인 조명이 어우러진 빅오쇼는 한눈에 관광객을 사로잡았다.

거대 원형 디오(The O) 워터젯에서 발사되는 분수와 형형색색의 조명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디오 상단부에서 허리케인 물을 스크린 삼아, 3D 휴로그램과 레이저 영상 등의 특수효과가 만들어 낸 영상이



‘라이브 황제’의 열정 콘서트

여수엑스포개막 개막 이후 최대 인파가 몰린 지난 19일, 엑스포 해상무대에서 가수 김장훈이 열정적으로 라이브 콘서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모습을 드러내자 관광객들은 탄성을 내질렀다.

환경이 오염된 미래를 형상화한 불쇼가 펼쳐지자 화염의 열기가 관광객 까지 전해지면서 생생한 감동을 선사했다.

부산에서 박람회를 찾은 노진석(39)씨는 “종일 전시관 앞에서 줄을 서야 해 힘들었는데, 빅오쇼를 보니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면서 “빅오쇼를 보지 않으면 이번 박람회의 즐거움을 제대로 즐기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람회장의 감동은 오동도 등 여수 곳곳으로 전해졌다. 여수에서 숙박하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이순신광장에서는 이날 밤, 기타를 치며 노래를 들려주는 거리의 악사들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가수들과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길거리 공연을 펼치며 새로운 ‘박람회 밤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외국 관광객들도 이순신광장에서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흥겨워 했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깊어 가는 여수의 밤을 아쉬워하는 관광객들도 많았

다.

지역 문화 단체들도 흥을 돋웠다. 이날 오후 6시~10시 풍물페 ‘현천소동’ 입실 ‘필봉놀이페’ 등이 흥겨운 우리 가락을 선사했고, 여수민예총의 국악 공연도 펼쳐졌다. 이곳에서 주말과 휴일 밤에 열리는 시민 노래자랑은 또 하나의 볼거리다.

또 이곳에서는 여수지역 향토 음식을 판매하는 야시장이 열려 관광객들이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오동도의 애경을 즐기는 것도 이번 박람회의 묘미다. 관광객들은 여수

도심과 돌산을 있는 길이 450m의 돌산대교를 거닐며 여수 밤바다를 만끽하기도 했다. 향일암 가는 길에 만나는 무술해변의 애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여수 관계자는 “박람회 기간 동안 시내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바가지요금과 위생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수 일대를 관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m@/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말괄량이 빼빼’ 23일 여수에 온다

‘R&B 황제’ 존레전드 26일 공연

유럽·중동·남미 참가국 공연도

말괄량이 빼빼와 R&B의 황제 존레전드가 여수를 찾는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는 20일 “포스트 스티비 원더”라 불리는 세계적인 스타 존레전드가 오는 26일 박람회장 해상무대에서 공연하고, DJ.DOC와 신해철은 각각 22~23일, 24~25일 천막극장에서 공연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 또, 유럽과 중동, 남미의 주요 참가국 공연이 초연된다.

스위스는 21일 ‘국가의 날’을 기념해 퓨전 공연을 선보인다. 맹고, 트위스트, 차차의 리듬에

맞춰 연주되는 전통음악과 춤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스위스를 표현할 예정이다.

중동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오만 믹스 공연은 22일 볼 수 있다. 1986년 설립된 전통문화공연단인 ‘알마즈드(Al-majd)’가 오만의 춤제, 결혼, 고기잡이 등을 주제로 흥겨운 춤과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23일에는 스웨덴에서 ‘말괄량이 빼빼’를 만날 수 있다. 말괄량이 빼빼는 스웨덴의 동화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작품으로, 책뿐만 아니라 외화로도 방영돼 큰 인기를 끌었다. 빼빼는 양 갈래로 땅은 빨간 머리를 지닌 사탕스런 악동 캐릭터의 대명사다. 이날 공연을 관람하는



오는 23일 여수엑스포 스웨덴관에서 공연될 ‘말괄량이 빼빼’의 한 장면.

어린이들에게는 스웨덴식 간식인 시나몬빵과 스무디를 나눠준다. 또 스웨덴관 앞에서는 모던 슬립스틱과 음악이 어우러진 코메디 공연이 열리고, 수상무대에서는 스웨덴 공연팀 ‘씨커스

알폰’과 함께하는 DJ쇼도 즐길 수 있다. 씨커스 알폰은 2009년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가장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은 거리공연팀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롯데제이티비

www.LOTTEJTB.com

롯데제이티비는 롯데그룹의 Global 여행 기업입니다.

여행 문의 1577-6511



*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홈쇼핑 상품전

인터넷

인증번호

인증번호